

## 미국 초대 산림청장 Gifford Pinchot의 자연보전을 위한 정열과 삶(2)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그가 워싱턴에 있던 12년(1898~1910) 동안 핀초트(좌측 사진)의 자연보전 실천은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는 유럽 현장 실습을 받은 젊은 임업가이지만 더 이상 전문 용어를 쓰고 임업기술발달만 힘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보수주의자와는 상반된 사고를 가진 진보주의자였다. 핀초트는 36년간 민간 속에서 활발히 일했는데 국가 보전 협회를 창립하였고 펜실바니아 주지사로서 2번 재임하는 동안 보전주의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09년 산림청장을 그만 둔 후 국민의식을 고취하여 루즈벨트

의 보전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가 만든 국가보전협회는 자연자원 개발에 관한 국회 법안을 반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법안의 가부를 먼저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조직은 유력 신문의 편집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정부가 국유림에 수력발전 지역을 통제하도록 유도하여 민영 사업에 의한 과도한 이득을 막도록 하였다. 협회는 또한 법안 초안 작성, 국회 위원회에 로비 활동도 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행정부의 반 보전정책을 막도록 했다. 이러한 열성적인 캠페인은 마침내 1920년 주정부 수력 법안을 통과시켜 협회와 협회 회장인 핀초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하여 Henry Ford의 Alabama에 있는 Muscle Shoals의 수력발전 계획이 무산되었다.

주지사 시절에도 자연보전을 위해 더 많은 주립 공원과 경

관 지역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러한 많은 사업계획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앞당기기도 했는데 핀초트는 국가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당선된 공무원들 중의 한 명으로서 기록됐다. 1920년 그가 인식한 산림이란, 인류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관점의 사고는 임업을 재조명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펜실바니아 주



에서 책임을 맡았던 임업분과 위원회에서 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마지막 큰 활엽수림을 자랑스럽게 보고했고, 주의 세금은 주관할 산림을 파괴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보전하는데 써야한다고 했다. 그는 숲속의 공간은 인간에게 보다 높은 이상과 투명한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서 인류의 심리 상태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산림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속에 있을 때의 정신적인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친구인 존 뮈어에게 그랜드 캐년 지역에 별이 빛나는 밤경치를 볼 수 있는 캠프를 하도록 오래 동안 권유하였는데 자연에 대한 그의 경외심을 알 수 있다.

그의 자연보전에 대한 진보적 개념은 과거 산림청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크게 놀라운 일이었다. 1919년 초에 국가보전협회의 후원을 통해서 그는 산림과 목재 공업의 밀접한 관계를 비난하였는데 그 이유는 협회의 자연보전운동을 저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업 즉 나무벌채업에 대한 그의 시각은 특히 1930년 초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1900년 국유림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미국 임업 협회를 몹시도 싫어했는데 정치적 실패와 국유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황량감으로 인해 당시 65세인 그는 동료 임업인과 함께 미국임업



Yosemite공원에서 자연보존정책 토론회 후 찍은 사진(중앙은 루즈벨트 대통령, 대통령 좌측은 pinchot, 우측은 John Muir. 이 두 사람은 pinchot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협회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핀초트가 새로운 임업정책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대통령 당선자인 루즈벨트의 관심을 끌었다. 동료인 R. Marschall과 Raphael Zon도 역시 미국 임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임업협회와 보전주의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사유림은 더 이상 임업의 희망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핀초트는 주정부가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핀초트는 세계 평화 유지가 곧 새로운 보전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0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은 산업국들의 자연자원 고갈이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는 자원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멸종되는 종을 보호하며,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 즉 UN과 같은 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

### 핀초트 인생의 재 조명

핀초트의 일생을 살펴보면 보전 정책에 대한 발자취를 알 수 있다. 즉 그와 관련된 과거의 사상, 사건, 연구기관에 대한 100년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일 임업 대학 설립(1900), 펜실바니아 주의 Milford에 있는 핀초트 가문 소유 토지의 시험림화, 미국 임업인 협회 창설(1900), 산림청(Forest Service) 창설(1905) 등이다. 이러한 성과는 금세기 초에 제안한 수백만 헥타르의 산림이 잘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난다.

국유림 보전 정책의 지속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핀초트가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유림에 대해 공동의 주인의식을 심은

것은 먼 장래에 대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러한 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관 창설의 중요성을 자각하였다.

핀초트의 자연 보전에 대한 신뢰는 20세기 말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 정책에 대한 선구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주장한 대로 국제 협정이 자원착취와 환경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와, 그 후에 지속 가능한 임업정책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에서의 국제적인 분류와 지침을 들 수 있다. 환경 보전운동 훨씬 전에 이미 정치, 계급, 환경 사이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졌던 핀초트는 정치적인 평등과 경제적인 권리가 동반해야 자연보전운동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그는 인류와 자연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열성을 다한 사람으로서 19세기와 20세기의 미국인이 건강한 지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핀초트가 국민을 위한 자연보전운동을 시작한 후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자연보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재음미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조경수**

